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Ⅲ

나의 시노달리티¹를 만들자

■ 머리말

제 16 차 세계 시노드는 2021 년 10 월 개회식부터 시작해 총회는 2023 년과 2024 년 10 월 두 차례 로마에서 개최됩니다. 시노드는 세계 대표 주교회의라고 칭하는데, 시노드란 그리스어의 ‘함께’를 나타내는 ‘싱’이라는 접두사와 ‘길, 여행, 살다’를 나타내는 ‘오도스’로 이루어진 말로, ‘함께 걷다’,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시노달리티란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본연의 자세」,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이번 시노드의 목적은 교회의 본질인 이 시노달리티를 현대 교회가 재발견하는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시노드가 그 과정 전체를 통해 신자라면 누구나 교회를 ‘자신들의 집’처럼 느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형제자매들의 희망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다가서는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노달리티에는, 「친교」, 「참가」, 「선교」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유래된 ‘친교’인 교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 ‘선교’를 행합니다.

올해의 사목교서는, 시노드의 앙케이트의 10 개의 질문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람과의 친교」, 「사회 참가」, 「신앙의 증거」에 대해서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시노달리티를 스스로 삶의 기본으로 삼아봅시다.

1. 우리가 함께 걷는 친구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4 년째를 맞는 코로나 사태 동안 ‘나는 도대체 누구와 걸어왔는가’ 이 물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접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감염 대책과 사회생활을 양립시키고 싶다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었습니까? 자신만의 안전과 안심을 우선시한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¹ ‘Synodalitas’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식별’을 위해 모든 하느님 백성이 친교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청하며 논의하는 여정의 구조와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Synodalitas’를 ‘공동 식별 여정’이라고 번역해왔지만 그 뜻을 완전히 담아 내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2021 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시노달리타스’라고 쓰기로 정하였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를 떠올려 봅시다. 유대인 사제과 레위인은 강도에게 습격 당한 빈사의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다가와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다가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있든 없든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통 받는 사람에게 희생을 아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 종사자나 에센셜 워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SNS 나 인터넷 등 새로운 수단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와도 자신에게서 사람과의 접촉을 찾아 서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 때, 그곳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노달리티의 기본 정신입니다.

2. 성령의 친교에 살아가며

시노달리티는 함께 걷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친교가 생깁니다. 우선 교회에서 말을 거는 것을 장려합니다. 미사에 와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미사 중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를 형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일상입니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기능 실습생처럼 일본어 습득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걸 용기가 없다든가, 듣는 쪽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든가, 단순히 시간이 없다든가 하는 등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친교는 인간적인 친밀감을 찾기 위한 것도, 동료에 있는 편이 든든하다는 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친교입니다. 한 성령에 의해 한 몸에 함께 이어지는 부분끼리의 친교입니다(1 코린토 12 장 참조).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랑의 친교를 낳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듣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공동체에서 공유할 수 있다면 해결을 위해 서로 의지하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듣는 성령의 선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만 듣는 것의 가장 큰 과제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입니다.

3. 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로마 12,4-5). 신앙인의 나눔은 성령에 의한 일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권리이자 소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용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나눔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여유가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지의 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난민과 이주자 문제, 인종 민족차별 등 다양한 위기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사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외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마태 5,6)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외침이야말로 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이며, 이 외침 속에 성령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시간의 표징’으로 읽어냅니다. 시노달리티를 목표로 하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의 괴로움이나 욕구에 무관심이 아니라, 소리 없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요한 의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 함께 생명을 축하하는 기쁨을 나누자.

이번 시노드의 설문조사 응답에서 전례 참가를 축하한다고 표현한 것(영어로는 미사를 celebrate 축하한다고 한다)을 의외로 느끼고 축하하는 실감이 나지 않은 채 전례에 참가하고 있다는 실태가 판명되었습니다. 외국 국적 신자들, 예를 들어 필리핀, 베트남,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로부터 ‘일본어로 미사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그것은 일본어 미사에서는 ‘함께 축하한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전례에 관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공동체가 말을 경청하고 에우카리스티아(성찬의 전례)를 축하하는 것이 생활과 선교에 자극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축하한다고 하면 신사의 축제를 연상합니다. 신사란 신이 내릴 수 있는 자리, 신이 계신 자리로 사람들은 신과 만나기 위해 참배하는데, 그 만남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운영되어 사람들의 소망과 삶의 기쁨을 나누는 장이 되고 지역사회의 유대를 계승해 갑니다. 축제의 이러한 특징은 그리스도교 전례와 공통되기도 하지만 카톨릭 교회의 미사의 첫 번째 특징은 성체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사람의 삶의 친교와 일치가 신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미사라는 것은 성가나 동작의 효과에 의한 체감적인 것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느님과의 친교와 일치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전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사 참석이 제한됨에 따라 미사야말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중요함을 통감하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립시기부터 시작된 일본 교회의 새로운 미사양식에 점차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미사를 공동체 모두가 축하하고 싶다는 기도의 마음을 깊게 하고자 합니다.

5.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교회”의 공동 책임을 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꿈은 그리스도가 작은 사람들을 우선시하여 함께 걸으셨듯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나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혼자 하느님을 믿고, 혼자 하느님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인 형제자매와의 친교에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목적도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 대한 꿈을 품고 이 꿈을 교회공동체에서 공유하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봉사자로서 선교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는 성직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증거와 사랑의 봉사를 통해 선교에 참여합니다. 봉사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시간과 노력, 물질적 수단을 기꺼이 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시노달리티로 인해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신자 고령화,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다양한 가치관 대응, 재정 문제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자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싶은 기개가 있어도 뚝뚝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기분에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시노달리티 정신으로 서로 의지하고 과제에 임하는 힘을 성령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6. 살기 좋은 사회의 배리어 프리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단, 차별, 격차라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의 다양한 배리어(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 병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세리, 이방인, 사마리아인, 과부와 여성 등 율법사회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되었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을 넘어 베풀어지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몸 주위에 있는 벽을 발견하고 그 벽에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예를 들어, 근처에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있다면, 간병의 어려움과 그 가족들의 상황을 생각하거나 혼자 사는 고령자나 병자를 방문하는 등, 개인으로도, 교회 동료와도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병을 가진 청년이나 등교 거부생이 있다면 현대 어린이들에게 공통되는 마음의 문제를 접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노달리티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주하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 결과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식당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작은 것 가능한 범위로 정성을 표현하면서 신념을 갖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관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자신의 임무 외에 인근 청소, 풀 베기, 친환경 활동, 지역 복지 활동, 자원봉사 등 봉사의 고리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시노달리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7. 사랑과 진리에 기초를 둔 대화의 촉진

종교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 중에서 자신만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 가정 내에서의 마음고생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신자는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도 가정이 제일의 선교의 장소라는

자각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가정은 개종을 권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1 요한 4,20).” 신앙의 기본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과 위로를 아낌없이 가족과 나누십시오. 가정은 시노달리티를 키우는 근원적인 장소입니다.

또, 일본 교회에는, 그리스도교 모든 종파가 상호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활동과 함께, 신도·불교·이슬람교 등의 모든 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대화란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양심을 인정하고 가톨릭교회의 부름에 대한 판단과 선택과 결단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 삶의 방식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리의 고지에 관해서 진리 그 자체에는 상냥하고 강하며 마음에 스며드는 힘이 있으며, 그 자체의 힘으로써가 아니면 결코 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1<서문> 참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종교의 차이를 알고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정의, 평화, 평등, 자유)를 위해 협동함으로써 서로의 일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시노달리티입니다.

8.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

세계 각지의 자연환경의 악화라는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는 장소에서의 자연 파괴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도, 이제는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가 빈번해, 가까운 생활이나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보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개인이든 사회든 국제정치든 공리주의와 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행동은 잘못이라고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힘쓰는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택해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도 복음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야말로 하느님의 순례자·선교자로서의 교회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시노드적 교회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이지만 교회 조직이 유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평소의 삶과 일하는 방식 속에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노달리티는 지구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 『성령에 의한 식별』을 믿고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이것은 시노달리티를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루카 16,19-31 참조)에서 부자는 자신의 집 현관에 있던 라자로를 보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무관심하게

힐끗 바라봤습니다. 상관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살아간다는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현대의 우리도 자신의 문 앞에 있는 라자로와 어떻게 함께 살고자 하는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처럼 영적인 선물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어지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1 코린토 12,4-11 참조).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 코린토 12,26). 이는 비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므로 세상의 사건이나 현상 속에 ‘시간의 표징’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를 성령에 의한 식별(Discernment of Spirits)을 통해 읽어냅니다. 식별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감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실제로 『성령에 의한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만날 때 성령은 인간의 노력을 인도하기 위해 일합니다.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 일련의 『성령에 의한 식별』은 시노달리티의 정당성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 사이에 의견이나 감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성령은 ‘시간의 표징’을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듣는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0. 자, 나갑시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 은혜의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노달리티의 모범인 성모 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루카 1,39-56 참조).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민감하게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요한 2,1-12 참조).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 참조)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으로, 사회의 부정 앞에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강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수습된다고 해도 세계가 이전과 같은 안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과거 팬데믹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고 전세계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고 일상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구원의 날, 은혜의 때(2 코린토 6,2 참조)입니다. 마리아를 본받아 가정에서도, 일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시노달리티입니다.

이번 시노드를 기회로 우리의 친교를 돈독히 하기 위해 공동체 만들기의 조직과 계획에만 맡기지 말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가져다 주는 복음의 풍요로움을 적극적으로 나눕시다. 마리아처럼 스스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달리기보다 함께 걷는 나의 『시노달리티를』 만듭시다.

2023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바오로 오오즈카 요시나오